

국별 리포트

#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3.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9
IV. 국제신인도 .....	12
V. 종합의견 .....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1,904천 Km <sup>2</sup>	G D P	5,279억 달러 (2009년)
인구	240.3백만 명 (2009년)	1 인 당 GDP	2,197달러 (2009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Rupiah (Rp)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 (달러당)	10,390 (2009년 말)

- 인도네시아는 17,50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로서 2억 4,027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 천연가스, 주석, 니켈, 목재, 석탄 등 자원이 풍부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임.
-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낮은 수출비중,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유도요노 정부의 적절한 경제운용 등에 힘입어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음.
- 2009년 4월 총선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PD)이 최다 의석을 차지한 데 이어, 동년 7월 대선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로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유도요노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개혁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연립정당들의 반대, 천연자원 외에 뚜렷한 수출기반 부족, 열악한 인프라, 투자 관련법 개정 지연 및 법 적용의 일관성 결여, 부정부패 만연 등이 경제성장을 지연시키는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경제성장률	5.7	5.5	6.3	6.1	4.6
재정수지 / GDP	-0.4	-1.0	-0.7	-0.6	-1.6
소비자물가상승률	10.5	13.1	6.4	10.1	4.6

자료: IMF, EIU.

#### □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세 지속

- 2004년 이후 연 5% 이상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2007년에는 민간소비 확대, 고정자산 투자 증가, 양호한 수출 증가세 유지 등에 힘입어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인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인 6.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2008년에는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1%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음.
- 2009년에는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빈곤층 앞 현금 지급 및 공무원 급여 인상 등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고 국제상품가격이 하락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하였으며, 동년 4월 총선 및 7월 대선 실시와 관련하여 정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연초의 전망치보다 높은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에 따라 물가 안정세

- 2000년대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정책과 경제여건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2006년에는 7년 이래 가장 높은 13.1%를 기록하였음. 그 후 유가 안정 및 루피아화 강세 등으로 200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4%로 안정되었으나, 2008년에는 식료품 가격과 유가가 급등하고 국내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1%로 다시 크게 높아졌음.

- 2008년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최근 2년 내 최고인 전년 동월대비 12.2%를 기록한 이후,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수요가 감소하면서 다소 안정세를 회복하여, 2009년 11월에는 최근 9년 이래 최저치인 전년 동월대비 2.7%를 기록하였음. 그 결과 2009년 전체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보다 크게 하락한 4.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 미 달러화 대비 루피아 환율의 안정세 회복

- 2008년 9월 국제금융위기가 심화된 이후 미 달러화 대비 루피아화의 환율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며 2008년 10월과 11월에 루피아화의 가치가 급락하자, 동년 12월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였음. 세계적인 유동성 위기와 함께 해외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성향이 확산됨에 따라, 엔 캐리 거래가 청산되고 투자자들이 신흥시장 자산을 매각하면서 2009년 3월 중순까지 루피아화는 계속 환율상승 압박을 받았음.

\* 미 달러화 대비 루피아화 월평균환율: 9,373루피아 (2008. 9) → 10,100루피아 (2008. 10) → 11,836루피아 (2008. 11) → 11,848루피아 (2009. 3)

- 2009년 3월 이후 루피아화 환율이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면서 2010년 3월 초에는 1달러당 약 9,180루피아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2010년 세계경기가 회복되면서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이 안정적인 정치발전과 양호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BI)이 급격한 루피아화 평가절상을 막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으로 전망됨.

#### □ 경기 회복세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요인 등으로 기준금리 동결

- 2008년 10월 이후 물가상승 압박요인들이 약화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정책을 물가 안정에서 성장 촉진으로 전환하였고, 중앙은행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총 300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기준금리가 2005년 기준금리 도입 이래 최저수준인 6.5%까지 인하되었음.
- 하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금융위기 이후 미 달러화 대비 큰 변동성을 보여 온 루피아화 환율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9년 9월 중앙은행이 금리동결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에는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물가상승 압박요인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증가 예상

- 인도네시아는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정수지 적자 폭은 2004년 이후 GDP의 1% 내외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해 왔음. 2008년에는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유류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정부의 예산 부담이 경감되어 GDP 대비 0.6%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09년 1월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71조 3,000억 루피아(약 72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빈곤층 앞 현금 지급 및 공무원 급여 인상을 통한 가계지출 지원, 12조 루피아(약 1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실제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고, 법인 소득세 2% 포인트 인하 등 신규 조세 인센티브 도입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세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덕분에, 2009년 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인 GDP의 1.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외국인투자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기반

- 인도네시아는 자체적으로 축적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여 외국인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정치, 사회적 불안정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경우 경제기반이 약화될 수 있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 전력, 도로 등 산업 인프라 열악

-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프라 여건이 열악하여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가구가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력 생산의 효율성 및 송배전 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도 낮은 편임. 도로운송 여건도 좋지 않은 곳이 많고, 컨테이너의 운송 및 통관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

## □ 지역별 불균형 발전 및 갈등 요인 상존

- 풍부한 천연자원과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로 점진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자카르타, 발리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만 성장의 과실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간, 종족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 □ 행정 비효율과 부정부패의 만연

- 유도유노 정부 출범 이후 제도 개선으로 이전에 비해 행정절차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외국인투자시 제도상의 허가기간에 비해 몇 배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개도국에서 통상 나타나는 자의적인 법해석 및 편법의 성행 등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나. 성장 잠재력

### □ 풍부한 에너지 자원 보유 및 개발투자 부족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산유국이며 세계 2대 LNG 수출국이나, 현재는 많은 유전들이 재투자 부족으로 생산량이 급속히 감소된 상태이며, 석유 잔여 확인매장량은 2008년 말 기준 약 37억 배럴(전 세계 매장량의 약 0.3%)임.

\* 석유 매장량 비교(2008년 말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2,641억 배럴, 인도 58억 배럴, 말레이시아 55억 배럴, 베트남 47억 배럴 등

- 최근 5년 이상 원유 생산량이 OPEC 쿼터를 밀돌았으며, 2004년에는 처음으로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락하였음. 이에 따라, 2008년 9월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OPEC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였음.
- 2010년경에 주요 유전의 생산이 거의 중단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탐사 및 정유 방식 도입, 적합한 보조금 정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석유 생산량 증산을 통해 순수출국의 지위로 복귀하게 될 경우 OPEC에 재가입할 가능성이 있음.
- 법적, 제도적 불안정으로 인해 재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자원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투자 증가와 자원개발 활성화가 기대됨. 또한 전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도 동국의 자원개발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보유

-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는 2009년 말 기준으로 약 2억 4,027만 명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며,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구 구조로 볼 때 0~14세 인구가 30%에 달하고 있어 적어도 향후 20~30년간 경제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인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 정책성과

##### □ 유도유노 정부의 안정적 경제정책 운용

-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도유노 정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투자 친화적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음.

##### □ 유도유노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개혁 추진

- 유도유노 대통령은 2004년 10월 취임 이후 경제발전을 위해서 외국인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부정부패 근절을 추진하는 한편, 인프라 서밋 개최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음.

\*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액: 19억 달러 (2004년) → 83억 달러 (2005년) → 49억 달러 (2006년) → 69억 달러 (2007년) → 93억 달러 (2008년)

- 2009년 7월 대통령 선거에서 유도유노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유도유노 대통령이 향후 경제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 투자법 및 세법 개정

- 2007년 4월 경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법과 내국인투자법을 통합하는 신투자법을 마련하였음. 신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내·외국인

동등 취급, 토지 이용기간 연장, 투자절차 진행기간 단축, 투자 인센티브 마련, 외국인투자자 체류허가 간소화 등임.

- 2008년 9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가 2009년 30%에서 28%로, 2010년에는 25%로 인하되고, 개인소득세 상한은 현 35%에서 30%로 인하될 예정임.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경 상 수 지	278	10,860	10,493	125	9,548
경상수지 / GDP	0.1	3.0	2.4	0.0	1.8
상 품 수 지	17,534	29,660	32,754	23,916	33,813
수 출	86,995	103,528	118,014	139,606	119,346
수 입	69,462	73,868	85,260	116,690	85,533
외 환 보 유 액	33,140	41,103	54,976	49,597	63,563
총 외 채 잔 액	132,794	130,800	140,783	147,665	154,943
총외채잔액 / GDP	46.5	35.9	32.6	28.9	29.4
D. S. R.	16.1	19.5	10.9	10.7	13.0

자료: IFS, EIU

####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 인도네시아의 상품수지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상품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소득수지 및 서비스수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음.
- 2008년 상반기에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연료소비가 증가하여 상품수지 흑자폭이 전년도 328억 달러에서 229억 달러로 감소 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 및 배당 송금, 외채이자 상환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도 105억 달러에서 1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음.

- 2009년에는 대외수요의 감소, 국제상품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하락, 국내투자 및 수요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대비 오히려 증가한 33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해외 근로자 송금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1.8%인 95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양호한 경제성장으로 총외채잔액/ GDP는 감소 추세

- 인도네시아의 총외채잔액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인도네시아의 양호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비교적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 총외채잔액: 1,408억 달러 (2007년) → 1,477억 달러 (2008년) → 1,549억 달러 (2009년)
- \* 총외채잔액/GDP: 32.6% (2007년) → 28.9% (2008년) → 29.4% (2009년)

- 최근 수년간 총수출증가율이 15%를 상회하면서 D.S.R. 수치가 개선되어 왔으나,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로 D.S.R.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 D.S.R.: 10.9% (2007년) → 10.7% (2008년) → 13.0% (2009년)

□ 단기 유동성에 큰 문제는 없을 듯

- 인도네시아는 루피아화 환율의 큰 변동성,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외채상환비용 증가,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그러나 2009년 말 외환보유액이 전년대비 28.2% 증가하여 월평균 수입액의 약 6개월분을 기록하는 등 대외지급능력이 개선되었으며, 2010년 2월까지 채권 발행을 통해 약 45조 7,000억 루피아(약 49억 달러)의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한 바 있으므로 외채상환 스케줄을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의 대외 유동성은 단기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 외환보유액: 550억 달러 (2007년) → 496억 달러 (2008년) → 636억 달러 (2009년)
- \* 2010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 225조 루피아(약 245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이 중 175조 루피아(약 191억 달러)는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루피아화 표시 채권임.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 유도유노 현 대통령의 압도적인 재선 승리

- 2009년 7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유도유노(Susilo Bambang Yudhoyono) 현 대통령이 60.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승리하였음.
- 유도유노 정부가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각각 빈곤층에 대한 현금 지급과 연료가격 인하 결정을 통해 가계의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효율적인 경제 운용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도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친투자자 개혁 정책을 실행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은 점 등이 유도유노 대통령의 대선 승리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 유도유노 대통령의 지속적인 개혁정책 추진 전망

- 2009년 4월 총선에서 유도유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Democrat Party: PD)이 26%(국회 총 의석수 560석 중 148석)의 득표율로 국회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한 데 이어 대선에서도 압승을 거둠에 따라, 향후 유도유노 대통령이 개혁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국회의석 결과: 민주당(PD) 26%, 골카르당(Golkar) 19%, 투쟁민주당(Indonesian Democratic Party-Struggle: PDI-P) 17% 등

- 이에 따라, 경제성장 및 외국인투자 지원, 고용 창출, 빈곤 퇴치, 사회복지 증진 등에 중점을 둔 경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인프라 개선, 행정 서비스 개혁, 연료 등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의 정책이 실행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유도유노 정부가 개혁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타 정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비록 유도유노 대통령이 6개 정당들의 지지를 받아 총 75%의 국회의석을 확보하였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이 정당들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최대 야당인 골카르(Golkar)당은 유도요노 1기 정부의 집권기간 중에도 부정부패 척결 등 정부의 개혁 노력에 대해 자주 걸림돌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 부정부패 스캔들로 유도요노 정부의 신뢰성에 위협

- 유도요노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초기에 밝혀진 부패척결위원회(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KPK)를 둘러싼 스캔들과 재선 선거운동 당시 은행 공적자금의 선거자금 유입 의혹 등으로 인해 유도요노 대통령의 청렴한 정부 이미지에 대한 신뢰성과 평판이 위협을 받게 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부정부패 스캔들은 정쟁 성격으로 발생한 측면이 다소 있으며, 유도요노 대통령을 대체할 만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이고, 유도요노 대통령이 세계 금융위기에서 인도네시아 경제를 성공적으로 관리, 운용해 온 만큼 유도요노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2. 사회안정

#### □ 유도요노 정부의 재집권으로 사회 다소 안정

- 유도요노 정부를 둘러싼 부정부패 의혹들로 인해 자카르타 시내에서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고 유도요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였으나, 유도요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높은 편으로 유도요노 정부를 위협할 만한 큰 사회불안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임.

#### □ 이슬람 세력의 폭탄테러 등 사회불안 발생 가능성

- 인도네시아 경찰은 2002년 및 2005년 발리 폭탄테러의 배후로 알려진 과격회교단체 제마 이슬라미야(Jemaah Islamiah: JI)를 비롯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2009년 7월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2건의 호텔 폭탄테러 사건으로 인하여 이슬람세력 등에 대한 불안이 다시 고조되었음.
- 제마 이슬라미야의 한 분파가 동 테러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수도 자카르타에서 고급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외국인 사업가들을 대상

으로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그 후 추가적인 테러 등의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음.

### 3. 국제관계

#### □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활동

- 인도네시아는 2006~08년 동안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였고, 세계 최대 경제국들의 모임인 G20 회의에도 참가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하고 있음.

#### □ 미국과 긴밀한 관계 기대

- 미국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바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으로 향후 대미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 주변국과 오래 지속된 문제들로 간헐적인 분쟁 발생

- 1999년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주둔 문제로 악화된 호주와의 관계는 인도네시아 어민들의 호주 영해에서의 불법 어업, 파푸아(Papua) 독립에 대한 호주의 지지 등의 문제로 간헐적으로 분쟁이 발생해왔으나, 2007년 케빈 러드(Kevin Rudd) 호주 총리가 선출된 이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음. 그러나 2009년 11월 스리랑카에서 호주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문제로 양국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관계가 다시 악화되었음.
- 말레이시아와는 서부 보르네오 해안 앞바다에 위치한 석유가 풍부한 암발라트(Ambalat) 지역에 대한 소유권 분쟁, 저임금을 받는 많은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자들에 대한 말레이시아 고용주들의 부당대우 등의 문제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어 왔음. 그러나 유도요노 대통령이 2기 정부 출범 이후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싱가포르와는 과거부터 인도네시아의 대 싱가포르 모래 수출 금지와 인도네시아 해군의 싱가포르 선적 나포 사건 등으로 관계가 좋은 편이 아니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 상환 태도

#### □ 정상적인 채무상환

- 인도네시아는 파리클럽과 2002년 4월 54억 달러, 런던클럽과는 동년 9월 13억 달러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합의하였고, 2005년에는 쓰나미 피해로 인해 파리클럽 채권국들로부터 2005년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외채원금 26억 달러에 대해 상환 유예를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경제상황 호전과 외환보유액 증가로 2010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IMF 차관을 2006년에 조기 상환하여 현재는 차관잔액이 없으며, 여타 채무상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2 (2009.10)	C2 (2009. 3)
OECD	5등급 (2009. 4)	5등급 (2008. 4)
S&P	BB (2010. 3)	BB- (2006. 7)
Moody's	Ba2 (2009. 9)	Ba3 (2007.10)
Fitch	BB+ (2010. 1)	BB (2008. 2)

\* Euromoney: 76/186 (2009. 3) → 73/186 (2009. 9) → 70/186 (2010. 3)

\* I.I.: 72/177 (2008. 9) → 74/177 (2009. 3) → 73/178 (2009. 9)

\* I.C.R.G.: 97/140 (2009. 3) → 71/140 (2009. 8) → 81/140 (2010. 2)

- 2009년 9월 Moody's는 세계 경기침체에 대한 인도네시아 경제의 비교적 빠른 회복세, 중기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 전망, 정부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경제정책 및 외채관리 등을 반영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기존 Ba3에서 B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2010년 1월 Fitch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상대적인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준 점을 반영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기존 BB에서 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2010년 3월 S&P도 정부의 채무비율 개선,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른 인도네시아 변동성의 감소 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기존 BB에서 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 영국 ECGD: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중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네덜란드 Astradius: 승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 국교수립: 1973년 9월 18일 (북한과는 1964년 4월 16일)

□ 주요협정: 경제및기술협력협정(1971년), 임업분야협력협정(1987년), 이종과세방지협정(1989년), 투자보장협정(1991년), 항공협정(1989년), 문화협력협정(2000년), 범죄인인도조약(2000년)

####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인도네시아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5,771	7,934	6,000	석유제품,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수 입	9,114	11,320	9,264	천연가스, 석탄, 원유
합 계	14,885	19,254	15,264	

자료: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10위 교역 상대국으로 석탄, 천연가스, 원유, 동광 등 우리나라의 필수적인 천연자원 공급처이며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임. 인도네시아와의 교역규모는 2007년 149억 달러, 2008년 193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라 153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6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대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는 2009년 12월말 현재 제조업과 광업 중심으로 4,985건(송금 횟수 기준), 36억 6,741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VI. 종합 의견

- 2008년 인도네시아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와 석유 및 식료품 가격 상승에 의한 소비수요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6.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 총선 및 대선 실시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 국제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4.6%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8년 9월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의 하락, 국내수요 감소 등으로 안정되면서 2008년 10.1%에서 2009년 4.6%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9년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지출 증가 및 법인 소득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GDP의 1.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9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PD)이 최다 의석을 차지한 데 이어, 동년 7월 대통령 선거에서 유도유노 대통령이 60.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유도유노 대통령이 지속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인도네시아 경제가 GDP 대비 수출비중이 약 30%로 비교적 낮은 수준임에 따라 대외여건의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편이고, 세계경기 침체 상황에서 유도유노 정부가 안정적인 정책 운용을 통해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으며, 외환보유액 증가 및 성공적인 채권 발행 등으로 대외지급능력도 개선되고 있음.

책임연구원 백 승 주 (☎02-3779-6648)  
E-mail: [sjpaik@koreaexim.go.kr](mailto:sjpaik@koreaexim.go.kr)